

大元電線(株), PVC옥내전화선 KS표시허가 획득

大元電線(株) (代表 : 李浩植)는 최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PVC 옥내전화선에 대하여 한국산업 규격표시허가를 획득했다.

○ 허가내용

허가 번호	규격 번호	규격 명	종류, 등급 또는 호칭
10447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PVC 옥내 전화선

○ 이전 안내 ○

利川電機工業(株) (代表 : 張世昌)는
 10.25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2 해성빌딩 11층
 (TEL : 528-2114 · FAX : 528-2119 / 20)으로 본사를 이전함.

◆ KOEMA 消息 ◆

重電機器 生産工場 및 大需要機關 訪問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경영·품질관리 우수업체의 공장 방문을 통한 회원사의 경영 및 품질관리 향상과 기술정보 습득, 대단위 수요자의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0月 27日부터 29日까지 2박 3일간 重電機器 生産工場과 大需要機關을 방문했다.

工商資源部 관계한 業界 任職員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최첨단 시설과 자동화설비를 보유한 日進電機工業(株) 수원공장, 金星電線(株) 구미공장, 現代重電機(株) 울산공장 및 金星產電(株) 창원공장을 비롯 韓國電力公社 고리원자력 발전소, 重電機器, 大需要機關인 浦項綜合製鐵(株) 포항공장을 견학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중소기업 및 동종업체 기술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 교환 및 정보교류를 함으로 동업자의식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품질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 절감과 시장개방의 파고속에서 우리 중전업체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구상해 보는 매우 값지고 뜻있는契機가 되었다.

南美 電機工業 輸出市場 開拓團 派遣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최근 사유화 정책에 따른 시장경제 도입과 인플레이의 안정으로 공업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어 대규모 발전설비 및 기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南美지역에 대한 수출시장 확보와 현지 전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전기공업계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남미 전기공업 수출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

1. 목 적

- 남미지역의 중전기기 현황 및 전기공업 수출시장 조사
- 상대국 구매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
- 현지업체와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
- 국내 중전기기 현황 소개 및 기술교류 창구 마련
- 현지업체의 기술협력 및 현지 진출에 따른 설비투자 환경 조사

2. 파견지역 (3개국)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칠레

3. 파견기간

• '93. 11. 10~11. 23 (14일간)

4. 개척단 구성 : 업계, 진흥회 11명

〈개척단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생산품목
한국 전기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임인주	-
계양전기(주)	전무이사	이상익	전동공구
동미전기공업(주)	전무이사	한상철	변압기
효성중공업(주)	부장	김영민	종합중전기기
금성전선(주)	부장	문용주	전선
일진전기공업(주)	부장	박시덕	차단기
중원전기공업(주)	부장	이상준	차단기
(주)진광	과장	김희기	개폐기
금성산전(주)	직원	박정준	종합중전기기
한국 전기공업진흥회	대리	이우식	

5. 개척단 주요활동 계획

- 국내 전기공업 현황 소개 및 수출상담회 개최
- 남미 전기공업 시장 현황 및 향후 동향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 전기공업분야의 기술협력방안 협의
- 상대국 전기기자재 수요기관과 국제입찰 및 구매계획 상담
- 생산공장 및 연구기관 시찰로 기술수준 및 생산체계 파악
- 현지업계와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환경조사
- '94전기기기 종합 국제전 홍보